

천국의 열
Heat in Heaven

¹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⁴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⁶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⁷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⁸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⁹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¹⁰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¹²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¹⁴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14)

지난주, 스페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4장,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에 이어 오늘은 15장, '천국의 빛과 열'(Light and Heat in Heaven) 중 후반부인 '천국의 열'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글 머리에 참고 표시('※')가 있으면 주석이거나 역자가 보탠 설명입니다.

※ 주석에 나오는 괄호 안 숫자들, 가령, 'AC.3338, 5215...' 같은 숫자들은 'Arcana Coelestia'라고, 스페덴보리가 쓴, 총 10,837개의 글로 된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의 글 번호를 가리킵니다.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 오늘부터는 이 주석은 읽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원고 상으로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133 이제 천국의 열(*the heat of heave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은 그 본질상 사랑입니다. 해로 계신 주님에게서 발(發, *goes forth*)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사랑(*Divine love*)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은 천국의 빛처럼 분명히 영적(*spiritual*)입니다. 같은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¹⁰³ *Something shall now be said about the heat of heaven. That heat in its essence is love. It goes forth from the Lord as a sun, which is Divine love in the Lord and from the Lord, as has been shown in the preceding chapter. It is evident, therefore, that the heat of heaven, like the light of heaven, is spiritual, because from the same source.*¹⁰³

※ 103. 열은 이 세상 해와 천국 해라는 두 근원이 있으며, 빛 또한 그렇습니다. *There are two sources o*

f heat and also two sources of light, the sun of the world and the sun of heaven (n. 3338, 5215, 7324). 해로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열은 사랑의 애정(affection)입니다. Heat from the Lord as a sun is of love (n. 3636, 3643). 그러므로 영적 열은 본질상 사랑입니다. Therefore spiritual heat in its essence is love (n. 2146, 3338, 3339, 6314).

해로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두 가지, 곧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이 있습니다. 온 천국에서 신적 진리는 빛으로, 신적 선은 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은 둘이 아닌 하나일 정도로 결합,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천사들한테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천사들은 신적 진리보다 신적 선을, 또 어떤 천사들은 신적 선보다 신적 진리를 더 받기(*receive*) 때문입니다. 신적 선을 더 받는 천사들은 주님의 천적 나라(*the Lord's celestial kingdom*)에, 신적 진리를 더 받는 천사들은 주님의 영적 나라(*his spiritual kingdom*)에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정도로 받는 천사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천사들입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go forth from the Lord as a sun, Divine truth and Divine good; Divine truth*

is manifested in the heavens as light, and Divine good as heat; and yet Divine truth and Divine good are so united that they are not two, but one. Nevertheless, with angels they are separate, for there are angels that receive more of Divine good than of Divine truth, and there are those that receive more of Divine truth than of Divine good. Those who receive more of Divine good are in the Lord's celestial kingdom, and those who receive more of Divine truth are in his spiritual kingdom. Those that receive both in a like degree are the most perfect angels.

※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의 결합, 융합은, 예를 들면, 햇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분명, 햇별에 손을 내놓으면 환하고 밝은 가운데 또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빛과 열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까지가 빛이고, 또 어디까지가 열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둘은 하나로 결합, 융합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천국 신적 선과 진리의 결합, 융합 또한 그런 건가 봅니다.

천국의 열은 천국 빛과 마찬가지로

134 장소마다 다릅니다. 천적 나라와 영적 나라가 다르며, 각 나라 모든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그 정도와 질(質, *in degree and in quality*), 둘 다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주님의 천적 나라는 그 세기(*intense*)와 순도(*pure*)가 더 강하고 더 높습니다. 그곳 천사들이 신적 선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주님의 영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것은 그곳 천사들이 신적 진리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공동체들도 그 수용 정도에 따라 그 열이 다 다릅니다. 지옥에도 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열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¹⁰⁴ *The heat of heaven, like the light of heaven, is everywhere different. It is different in the celestial kingdom from what it is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it is different in each society therein. It differs both in degree and in quality. It is more intense and more pure in the Lord's celestial kingdom, because the angels there receive more of Divine good; and it is less intense and pure in his spiritual kingdom, because the angels there receive more of Divine truth. Also in each society the heat differs in accordance with reception. There is heat*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 (*Heat in Heaven*)'

in the hells, but it is unclean heat.
104

※ 104. 지옥들 안에 있는 열,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There is heat in the hells, but it is unclean (n. 1773, 2757, 3340)*. 지옥의 악취는 마치 이 세상 똥과 대변, 배설물의 악취와 같으며, 가장 최악 지옥들에서는 시체 냄새와도 같습니다. *The odor from it is like the odor from dung and excrement in the world, and in the worst hells like the odor of dead bodies (n. 814, 815, 817, 819, 820, 943, 944, 5394)*.

천국의 열은 거룩한 불, 하늘 불로 상징되지만, 지옥의 열은 신성모독의 불, 지옥 불로 상징됩니다. 둘 다 사랑을 의미하지만, 천국 불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love to the Lord and love to the neighbor*), 그리고 그런 사랑들에 대한 모든 애정(*affection*)을, 지옥 불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love of self and love of the world*), 그리고 그런 사랑들에 대한 모든 정욕(*lust*)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열이라는 사실은 사람이 사랑으로 더워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그가 가진 사랑의 강도와 본질(*strength and nature*)에 따라 뜨겁게 불

붙고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사랑의 열기는 공격받을 때(*when it is opposed*) 확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로, 흔히 선한 사랑의 애정들이나 악한 사랑의 욕망들에 대해서 불붙는다, 뜨거워진다, 타오른다, 끓는다, 불탄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The heat in heaven is what is meant by holy and heavenly fire, and the heat of hell by profane and infernal fire. Both mean love—heavenly fire meaning love to the Lord and love to the neighbor and every affection of those loves, and infernal fire meaning love of self and love of the world and every lust of those loves. That love is heat from a spiritual source is shown from one's growing warm with love; for in accordance with the strength and nature of his love a man is inflamed and grows warm; and the heat of his love is made manifest when it is opposed. From this also it is customary to speak of being inflamed, growing hot, burning, boiling, being on fire, both in regard to the affections of the love of good and the lusts of the love of evil.*

135 해로 계신 주님께에서 나오는 사랑이 천국에서는 열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의 내면이 주님의 신적 선을 받아 사랑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들의 외면 또한 따뜻해져 열기가 느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국에서는 열과 사랑이 서로 상응하여 그곳 모두가 위에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각자의 사랑만큼 또한 열, 즉 따뜻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열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데요, 너무 거칠고 자연적이며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은 영계와 자연계 양쪽에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은 정확히 그들의 사랑만큼 따뜻해지지만 사람의 몸은 그들 영의 열과 세상 열 둘 다로 따뜻해집니다. 전자, 곧 영의 열이 후자인 몸안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 둘이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열의 상응의 본질은 동물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족 번식이 주된 이유인 동물의 사랑은 봄 여름 이 세상 해에서 나오는 열로 불붙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동물의 사랑 시늉이 이 세상 열의 유입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유입, 곧 흐름이란 오직 영계에서 자연계로

흐를 뿐, 역으로 자연계에서 영계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입, 곧 인플럭스(*influx*, 入流)는 신적 질서이지만 그 역(逆)은 신적 질서에 반(反)하는, 신적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¹⁰⁵ *Love going forth from the Lord as a sun is felt in heaven as heat, because the interiors of the angels are in a state of love from the Divine good that is from the Lord; and in consequence their exteriors which grow warm therefrom are in a state of heat. For this reason heat and love so correspond to each other in heaven that everyone there is in heat such as his love is, according to what has been said just above. The world's heat does not enter heaven at all, because it is too gross, and is natural, and not spiritual; but with men it is otherwise, because they are in both the spiritual world and the natural world. As to their spirits they grow warm in exact accordance with their loves; but as to the body they grow warm both from the heat of their spirit and from the heat of the world. The former flows into the latter, because they correspond. The nature of the correspondence of*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the two kinds of heat can be seen from animal life, in that the love of animals—the chief of which is the love of propagating offspring of their kind—bursts forth and becomes active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and influence of heat from the sun of the world, which is the heat of the spring and the summer seasons. Those who believe that the world's heat flows in and excites these loves are greatly mistaken, for there can be no influx from the natural into the spiritual, but only from the spiritual into the natural. This influx is of Divine order, but the other would be contrary to Divine order.¹⁰⁵

※ 105. 영적, 즉 물질적이지 않은 인플럭스가 존재합니다. 즉 영계에서 자연계로 흐르는, 자연계에서 영계로 흐르는 게 아닌, 그런 인플럭스가 존재합니다. *There is spiritual influx, but not physical, that is, there is influx from the spiritual world into the natural, but not from the natural world into the spiritual (n. 3219, 5119, 5259, 5427, 5428, 5477, 6322, 9109, 9110, 9111).*

136 천사들도 사람처럼 이해(understanding)와 의지(will)가 있습니다. 천국의 빛은 그들 이해의 생명을 이루는데요, 그 빛은 신적 진리와 거기서 나오는 신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은 그들 의지의 생명을 이룹니다. 그 열은 신적 선과 거기서 나오는 신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생명 자체는 열에서 오며, 빛에서도 오는 경우는 그 빛 안에 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입니다. 생명이 열에서 온다는 건 열이 거두어질 때 생명이 꺼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 선 없는 진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의 진리라 하는 진리는 빛이며, 사랑의 선이라 하는 선은 열이기 때문입니다.¹⁰⁶ *Angels, like men, have understanding and will. The light of heaven constitutes the life of their understanding, because that light is Divine truth and Divine wisdom therefrom; and the heat of heaven constitutes the life of their will, because that heat is Divine good and Divine love therefrom. The veriest life of the angels is from heat, and from light only so far as heat is in it. That life is from heat is shown by the fact that when heat is taken away life perishes. The sam*

*e is true of faith without love or of truth without good; since the truth that is called truth of faith is light, and the good that is called good of love is heat.*¹⁰⁶

※ 106. 선과 분리된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진리 안엔 생명이 없기 때문인데, 진리는 그 모든 생명이 선에서 옵니다. *Truths apart from good are not in themselves truths because they have no life; for truths have all their life from good (n. 9603).* 그래서 선과 분리된 진리는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습니다. *Thus truths apart from good are like a body without a soul (n. 3180, 9154).* 선과 분리된 진리를 주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Truths apart from good are not accepted by the Lord (n. 4368).* 선과 분리된 진리, 즉 사랑 없는 신앙이 있으며, 선에서 나오는 진리 혹은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What truth apart from good, that is, what faith apart from love is, and what truth from good or faith from love is (n. 1949 - 1951, 1964, 5830, 5951).* 진리라고 하든지 신앙이라 하든지 같은 것이며, 선이라 하든지 사랑이라 하든지 역시 같은 겁니다. 진리는 신앙에, 선은 사랑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It amounts to the same thing whether you say truth or faith, or whether you say good or love, since truth is of faith and good is of love (n. 2839, 4352, 4353, 4997, 7178, 7623, 7624, 10367).*

천국 열과 빛에 상응하는 이 세상 열과 빛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봄 여름, 이 세상 열이 빛과 결합하면 지상 만물이 생동, 성장하지만 열이 사라진 빛만으로는 아무것도 생동, 성장할 수 없고, 모든 게 시들어 죽습니다. 이들 열과 빛은 겨울엔 결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겨울에도 빛은 있지만 열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응이 있어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진리는 선과, 신앙은 사랑과 마치 지상 봄철 빛과 열이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더욱 명료해지는 사실은 앞서 그 해당 장에서 밝힌 진리, 곧 천국 주님의 신성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This is more clearly shown by the heat and light of the world, to which the heat and light of heaven correspond. By the world's heat when conjoined with light, as in spring and summer, all things*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on the earth are quickened and grow, but by light separate from heat at nothing is quickened or grows, but everything lies torpid and dies. They are not conjoined in winter, when heat is absent though light remains. From this correspondence heaven is called paradise, since truth is there joined with good, or faith with love, as light is with heat in springtime on the earth. All this makes more clear the truth set forth in its own chapter (n. 13 - 19), that the Divine of the Lord in Heaven is love to him and charity toward the neighbor.

137 요한복음입니다. *It is said in John:*

¹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⁴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⁶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의 이름은 요한이라 ⁷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⁸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⁹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¹⁰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¹²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¹⁴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14)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God was the Word.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hath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John 1:1 - 14).

여기 분명히 '말씀'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함구하고 있으므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한테서 나오는 신적 진리를 의미합니다.¹⁰⁷ *Evidently the Lord is here meant by "the Word," for it is said that "the Word became flesh." But what is specifically meant by "the Word" is not known and shall therefore be explained. Here "the Word" means the Divine truth which is in the Lord and from the Lord,¹⁰⁷*

※ 107. 성경(*the Sacred Scripture*)에서 '말'(word)은 여러 가지 즉, 말(*speech*), 마음의 생각, 실제 존재하는 것(*anything*), 어떤 것(*something*)을 상징하며,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적 진리, 그리고 주님을 상징합니다. *In the Sacred Scripture "word" signifies various things, namely, speech, thought of the mind, anything that really exists, also something, and in the highest sense Divine truth, and the Lord (n. 998*

7). '말씀'(Word)은 신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Word" signifies Divine truth (n. 2803, 2894, 4692, 5075, 5272, 9383, 9987).* '말씀'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Word" signifies the Lord (n. 2533, 2859).*

그리고 이것이 또한 왜 그분을 '빛'(the Light), 곧 본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신적 진리인 '빛'이라 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은 바로 신적 진리에 의한 것임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and this is why it is also called "the Light," which is the Divine truth, as has been already shown in this chapter. That it was by means of Divine truth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and made shall now be explained.*

[2] 천국에서는 신적 진리에 모든 능력(power)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는 어떤 힘,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¹⁰⁸ *In heaven Divine truth has all power, and apart from it there is no power whatever.¹⁰⁸*

※ 108. 주님에게서 발하는(發, going forth) 신적 진리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Divine truth going forth from the Lord has all power (n. 6*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948, 8200). 천국에서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Truth from good has all power in heaven (n. 3091, 3563, 6344, 6423, 8304, 9643, 10019, 10182)*. 천사들을 능력이라 하며, 실제로 그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를 수용함으로써 능력이 됩니다. *Angels are called powers, and are powers by the reception of Divine truth from the Lord (n. 9639)*. 천사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의 수용체들(recipients)이며, 그래서 말씀에서 가끔 신(gods)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Angels are recipients of Divine truth from the Lord and therefore in the Word are sometimes called gods (n. 4295, 4402, 7873, 8192, 8301)*.

신적 진리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능력이라 하며, 천사들은 신적 진리의 수용체, 그릇인 정도만큼만 능력입니다. 신적 진리에 의해 천사들은 지옥을 이기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곳 수천의 세력들이 신적 진리인 천국 빛 한 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천사가 천사인 것은 그들이 신적 진리를 받기 때문이며, 천국 전체는 신적 진리 말고 무슨 다른 근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천국은 천사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From the Divine truth angels are called powers, and are power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recipients or receptacles of it. By means of it they prevail over the hells and over all that oppose them. A thousand enemies there cannot stand against a single ray of the light of heaven, which is Divine truth. As angels are angels by their reception of Divine truth it follows that the entire heaven is from no other source, since heaven consists of angels.*

[3] 진리를 생각이나 말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은 신적 진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사람이 그 진리를 순종, 행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적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 그 힘으로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신적 진리에 그런 능력이 있음은 다음 두 가지 비교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지닌 진리와 선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해의 빛과 열의 능력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의 능력에 의해서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 이해와 의지로 합니다.

의지는 선을 가지고, 이해는 진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의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과 관계가 있고, 이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¹⁰⁹ *That there is such power in Divine truth those cannot believe that have no other idea of truth than that it is thought or speech, which has in it no power except as others do it from obedience. But Divine truth has power in itself, and such power that by means of it heaven was created and the world with all things therein. That there is such power in Divine truth may be shown by two comparisons—by the power of truth and good in man, and by the power of light and heat from the sun in the world. By the power of good and truth in man, in that everything that a man does he does from his understanding and will—from his will by means of good and from his understanding by means of truth; for all things in the will have relation to good and all things in the understanding have relation to truth.*¹⁰⁹

※ 109.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리고 의지는 선을 담는 그릇, 수용체

입니다. *The understanding is a recipient of truth, and the will a recipient of good (n. 3623, 6125, 7503, 9300, 9930).* 그런 까닭에 이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들, 그것들이 실제로 진리들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거나 하여튼 진리들과 관련되며, 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들과 관련됩니다. *Therefore all things in the understanding have relation to truths, whether they are really truths or are believed by man to be truths, and all things in the will in like manner have relation to goods (n. 803, 10122).*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 전체를 움직여 그 안의 수천 가지가 그 하나하나의 의도와 기쁨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확 달려드는 것은 모두 이 선과 진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사람의 온몸은 선과 진리에 관한 쓰임새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과 진리에 의해 지음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명료해집니다. *Therefore it is from good and truth that man moves his whole body, and a thousand things therein rush with one accord to do their will and pleasure. This makes clear that the whole bo*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dy is formed for subservience to good and truth, consequently is formed by good and truth.

[4] 이 세상 해의 열과 빛의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자라는 모든 것에 있어, 곧 나무, 곡식, 꽃, 풀, 열매, 씨앗 등이 모두 해의 열과 빛에 의해 존재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해의 열과 빛의 생산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적 진리인 신적 빛과 신적 선인 신적 열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천국이 이들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도 그에 의해, 즉 신적 빛과 신적 열로 존재하는데, 이미 밝혔듯 세상은 천국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다음 말씀의 의미, 곧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적 진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¹¹⁰ *By the power of heat and light from the sun in the world, in that all things that grow in the world, as trees, cereals, flowers, grasses, fruits, and seeds, come into existence wholly by means of the heat and light of the su*

n; which shows what power of producing there is in them. What, then, must be the power in Divine light, which is Divine truth, and in Divine heat, which is Divine good? Because heaven has its existence from these, so does the world have its existence therefrom, since the world has its existence by means of heaven, as has been already shown. From all this the meaning of these words can be seen that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the Word, and without the Word was not anything made that has been made"; also that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at is, through Divine truth from the Lord.¹¹⁰

※ 110. 주님께게서 발하는 신적 진리만이 오직 단 하나의 진짜이십니다. *Divine truth going forth from the Lord is the only real thing (n. 6880, 7004, 8200).* 신적 진리로 만물은 지음을 받았고 만들어졌습니다. *By means of Divine truth all things were created and made (n. 2803, 2884, 5272, 7678).*

같은 이유로, 창세기에 처음 빛이 나오고, 그 빛에 의해 생긴 것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창1:3, 4). 또 같은 이유로, 우주의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선과 진리에 그리고 그 둘의 결합에 관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For the same reason, in the book of Genesis, light is first spoken of, and then the things that are from light (Gen. 1:3, 4). For this reason also all things in the universe, both in heaven and in the world, have relation to good and truth and to their conjunction, in order to be anything.*

139 ¹¹¹ 그 근원이 천국에서 해로 계신 주님에게 있는 신적 선과 신적 진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는 오직 신적 사랑만 있습니다. 이 신적 사랑이 궁극적 존재[*esse, the being*]이며, 거기서 신적 선과 신적 진리가 샘솟듯 솟아납니다. 궁극적 존재에서 생겨나는 것[*exister e, outgo*]을 ‘앞으로 나아감’[*procedere, going forth*]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상 해로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요, 세상 열과 빛은 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 안에는

오직 불이 있으며, 열과 빛이 솟아나 전방위로 발산하는 것은 바로 이 불한테서인 것입니다.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e Divine good and the Divine truth that are from the Lord as a sun in the heavens are not in the Lord, but are from the Lord. In the Lord there is only Divine love, which is the being [esse] from which the Divine good and the Divine truth spring. Outgo [exister e] from being [esse] is meant by going forth [procedere]. This, too, can be made clear by comparison with the world's sun. The heat and light that are in the world are not in the sun, but are from the sun. In the sun there is fire only, and it is from this that heat and light spring and go forth.*

※ 111. [원본에 138번 글이 없습니다. - 역자 주] [*There is no n. 138 in the original. -Editor.*]

140 해로 계신 주님은 신적 사랑이시고, 신적 사랑은 신적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천국 안의 신성, 즉 주님한테서 나오는 신성은 신적 진리와 결합된 신적 선

요1:1-14, HH.1.15.133-140

‘천국의 열(Heat in Heaven)’

이지만, 구별을 위해 신적 진리라고 합니다. 이 신적 진리를 주님한테서 발산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ince the Lord as a sun is Divine love, and Divine love is Divine good itself, the Divine that goes forth from the Lord, which is his Divine in heaven, is called, for the sake of distinction, Divine truth, although it is in fact Divine good united to Divine truth. This Divine truth is what is called the holy that goes forth from him.*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열은 사랑이신 주님한테서 나오는 선, 곧 주님의 신적 선입니다. 이 세상 해에서 열과 빛이 나오듯 천국의 해이신 주님한테서도 열과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 선과 신적 진리입니다. 이 둘을 합쳐 주님의 신성이라 하며, 이 주님의 신성 중 신적 선을 더 받아들이는 천사가 천적 나라 천사, 진리를 더 받아들이는 천사가 영적 나라 천사입니다. 천국의 빛처럼 천국의 열 또한 각 천국마다, 그리고 천국 안 각 공동체들마다 및 각 개별 천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옥에도 열이 있지만 그 열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선으로 그 내면이 데워져 천국 열, 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 영으로는 천국에, 육으로는 지상 자연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따로는 아니고, 사람도 동물도, 지상 만물도 다 그 열의 순서는 주님-천국-지상 순입니다. 즉 물질적 열도 그 근원은 영계, 곧 천국과 주님한테로 연결됩니다. 천사나 사람이나 둘 다 이해와 의지로 되어 있는데, 이해는 빛, 곧 신적 진리에, 의지는 열, 곧 신적 선에 상응합니다. 열은 의지의 생명이고, 빛은 이해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 해의 열과 빛으로 만물이 생동, 성장하거나 하물며 천국 해이신 주님의 열과 빛은 그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의 창조는 바로 이 신적 진리 안에 담긴 신적 선, 곧 주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힘써 천국 열 받기에 힘써 따뜻한 생명의 사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11-20(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